

전남, 신재생에너지 거점 육성으로 균형발전 이뤄야



<2>지방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전국 태양광·풍력 20% 집중 주목
李,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등 공약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기대감
지역 내 전력 소비 특별법 등 필요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 전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한 전라남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환경부의 기후 업무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통합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관련 제도 개선 및 행정 절차 일원화가 병행될 경우, 지방 분산형 에너지 체계 정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RE100'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기후 위기 시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해남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목포 RE100 전용 국가 그린산단 조성 △진도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조성 등을 약속하는 등 전남을 '에너지 거점도시'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전남은 전국 태양광과 풍력 설비의 20% 이상이 집중돼 있는 곳으로, 해남·영광·고흥을 중심으로는 6GW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신안·완도·여수에는 0.45GW 규모의 육·해상풍력 장비가 설치돼 있다.

특히 전남도는 쌀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8일 영광에서 열린 '주민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1단계 발전단지 준공식'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3MW 규모의 발전 시설을 조성해 한 가구당 연 142만 원에 달하는 발전 수익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상풍력의 경우 지난 4월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집적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민자 20조원을 투입해 전체 10개 단지 3.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목포신항 배후단지 등을 중심으로 터빈, 하부 구조물 등 관련 기자재 생산 클러스터 조성 및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에 이 대통령의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따른 행정 절차 일원화로 전남의 관련 신재생사업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전력 생산 증대와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을 중단하거나 조기 폐쇄하는 등의 '탈원전' 추진에 앞장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화석연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특성을 살려 적절히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되 원전을 활용할 것"이라며 "기저전력원인 원전을 완전히 중단할 수는 없다고 본다. 가능한 범위에서 원전을 활용하고, 더 안전한 소형 모듈 원전인 SMR 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전남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 2면에 계속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신안군 바다살리기 실천대회 '2025 신안군 바다살리기 실천대회'가 10일 신안 압해읍 1004섬 분재공원 해안가에서 열려 김강심 신안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 기획 신안군 세계유산과장, 주래만 신안군 해양수산과장과 지역 주민, 어민들이 어망 등 폐어구를 수거하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김양배 기자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특검 정국 가시화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본격화
李 "헌정질서 회복 국민 뜻 부응"

'3대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

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히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권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관련기사 4면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세계인의 섬 청정제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제1일: 지역별 부두출발 - 제주항 도착 - 숙소

제2일: 카멜리아힐-농원석부작테마공원-올레길걷기체험-산방산유람선(결항시더마파크)
-한라수목원-한방본초죽육-숙소

제3일: 기념품전시매장-사려니숲-승마체험-스카이워터쇼 or 태권마살아트공연-성음민속보존마을
-아쿠아플라넷수족관관람-제주농수산직매장-숙소

제4일: 제주항 도착 후 승선수속 - 제주항 출발

해외여행, 수학여행, 기업연수, 등반, 단체관광 전문

골드스텔라 (여수↔제주)
(금빛 로드를 잇는) 모던 프레스티지 카페리

실버클라우드 (완도↔제주)
국내 기술로 건조한, 첫 대형 카페리

산타모니카 (진도↔제주)
초 쾌속 카페리

퀸제누비아II (목포↔제주)
최대 최고 초호화 크루즈형 여객선

광주·전남 총판 현대관광 서재웅(010-7375-1357) 061-245-0099

제주여행은 **송죽레저관광**과 함께 T. 064.747-8000 F. 064.747-2590 H. 010-6865-7000

실버클라우드 전경
완도출발 02:30 / 15:00
제주출발 07:20 / 19:30

골드스텔라 전경
여수출발 00:25
제주출발 16:10

산타모니카 전경
진도출발 08:00
제주출발 11:00

퀸제누비아II 전경
목포출발 08:45
제주출발 16:45